

農業 및 水産業 政策金融의 比較 研究

丁 常 鎭*

A Comparative Study of Financial Support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Jung, Sang - Jin

目	次
I. 서 론	V. 결 론
II. 농업 및 수산업 자금수요의 특징	참고문헌
III. 농업 및 수산업 정책금융의 현황	Abstract
IV. 농업 및 수산업 정책금융의 개선방향	

I. 서 론

이제까지 수산업은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 측면에서 농업의 일부로 취급되어 왔고 그 특수성은 상당 부분 간과되어 왔다. 수산업은 농업과 비교하여 1차 산업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많은 특수한 면을 가진다. 특히 유류 오염, 赤潮 등 해양 환경 오염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등으로 수산업은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변동하는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일률적인 정책 적용은 재정 투입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므로 산업별로 차별화된 정책 개발과 금융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농업과 수산업의 자금 수요의 특성과 정책 금융의 현황을 분석하고 농업 금융과 수산업 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정부는 WTO 체제에 대비하여 농업과 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과 수산업 정책과 지원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최초로 농업과 수산업을 위한 금융과 재정투입자를 비교하여 농업 및 수산업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한편 농민과 어민들이 그 경영체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 투자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의 내용은 수협중앙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고 저자 개인의 의견이다.

업과 수산업 자금수요와 정책자금 공급의 연계를 모색하는 데도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농업 및 수산업 자금수요의 특성, 농업 및 수산업 정책금융의 현황, 농업 및 수산업 정책금융의 개선 방향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농업과 수산업 자금수요의 특성에서는 자산 규모와 구성, 자금 조달 및 운용, 차입금 규모와 구성, 자금 상환 능력 등을 어가와 농가를 대비하여 비교한다. 다음으로 농업과 수산업 정책 자금 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차이점을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농업 및 수산업 자금수요의 특성

농업 및 수산업 금융시장의 규모를 보기 위해 예금은행 대출액을 산업별로 보면 <표 Ⅱ - 1>에서 수산업 부문의 대출액은 1994년 16,865억원으로 그 대출 비중은 1.7%이다. 이러한 수준은 수산업 생산액이 1993년 경사가격으로 21,093억원이고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여도 0.8%보다 높은 수준이다. 농업 부문의 대출액은 1994년 111,523억원으로 그 대출 비중은 11.3%이다. 이러한 수준은 농업 생산액이 1993년 경사가격으로 166,757억원이고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여도 6.3%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총생산 중 농업과 수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예금은행 대출금 가운데 농업과 수산업 대출 비중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 부문 대출액은 농업 부문 대출액의 15.1%에 해당한다. 한편 수산업 생산액은 1993년의 경우 농업 생산액의 12.7%이다.

<표 Ⅱ - 1>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1994년)

(단위 : 억원, %)

	전 산 업	농 업	수 산 업	광 업	제 조 업	기 타
대 출 금	990,294(100.0)	111,523(11.3)	16,865(1.7)	3,641(0.4)	571,277(57.7)	286,988(29.0)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표 Ⅱ - 2>에서 보면 어가의 총자산액은 1991년 81,294천원으로 농가의 총자산액 99,189천원에 비해 적다. 자산 구성을 보면 1991년 어가 총자산중 고정자산의 비중이 무려 83.0%를 차지한다. 특히 토지의 비중은 61.8%로 이는 어가의 소득 기반이 半農半漁임을 반영한다. 반면에 대어구의 비중은 6.8%, 유동자산의 비중은 6.1%, 유통자산의 비중은 10.9%이다. 농가의 자산 구성과 비교해 보면 1991년 농가의 총자산중 고정자산은 88.6%, 유동자산은 3.3%, 유통자산이 8.1%를 점하여 어가의 자산 구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어가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보면 자금 조달에 있어서 금융계정이 1993년 41.2%를 차지하고 자금 운용에 있어서 금융계정이 44.7%를 점한다. 이로 볼 때 어가 경영은 상당히 상업화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농가의 자금 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금융계정의 비중이 각각 1990년 38.5%, 43.7%를 차지하여 농가 경영의 상업화가 진행중인 것과 대조된다.

어가의 자금 수요는 대체로 그 경영 규모에 비례한다. 어가의 평균 경영 규모(사업 및 사업외 수입액)는 1993년 22,480천원으로 영세하고 그 자금 수요의 크기도 적다. 그리고 어가의 경영 소요 자금

<표 II-2> 어가 및 농가 자금수요의 특성

	어 가 평 균	농 가 평 균
총자산액	81,294천원	99,189천원
고정자산비율	83.0%	88.6%
유동자산비율	6.1%	3.3%
유통자산비율	10.9%	8.1%
자금조달 또는 운용액	40,045천원	29,604천원
자금조달중 경상계정	22,480천원 (56.1%)	14,417천원 (48.7%)
자금조달중 금융계정	16,479천원 (41.2%)	11,398천원 (38.5%)
자금운용중 경상계정	17,460천원 (43.6%)	12,108천원 (40.9%)
자금운용중 금융계정	17,914천원 (44.7%)	12,937천원 (43.7%)
경영소요자금	17,460천원	12,108천원
경영소요자금중 부채	7,662천원 (43.9%)	4,734천원 (39.1%)
부채중 생산성부채 비율	79.5%	66.5%
부채중 소비성부채 비율	14.7%	16.4%
부채중 사채 비율	20.5%	13.9%
자금차입시기	1, 3사분기에 집중	3~5월에 집중
자금상환시기	2, 4사분기에 집중	11~12월에 집중
소 득	11,308천원	13,105천원
사업소득율(소득/사업수입)	57.0%	67.3%
소득에 대한 부채비율	57.7%	39.6%

자료 : 농림수산부 어가경제통계, 농업금융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1993)

1. 자산 관련 자료는 모두 1991년 자료이다.
2. 자금 조달 및 운용 관련 자료는 어가의 경우 1993년, 농가의 경우 1990년 자료이다.
3. 경영 소요 자금 관련 자료는 어가의 경우 1993년, 농가의 경우 1990년 자료이다.
4. 소득 관련 자료는 모두 1991년 자료이다. 예외로 사업 소득률은 모두 1993년 자료이다.

(가계비 포함한 경영비용)은 1993년의 경우 17,460천원인데 그중 차입금은 7,662천원으로 부채 의존도는 43.9%에 이른다. 농가의 경영 소요 자금은 1990년의 경우 12,108천원(1992년에는 14,464천원)이고 그중 차입금은 4,734천원으로 부채 의존도는 39.1%이다. 따라서 어가의 경영 소요 자금이 농가보다 더 많고 경영 소요 자금의 부채 의존도도 더 높다.

차입금의 용도를 보면 대부분의 어가가 기업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못하고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이 미분화되어 있다. 어가는 소비성 자금과 생산성 자금을 혼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가의 총부채 가운데 어업 생산용 부채의 비율은 1993년의 경우 39.7%, 겸업 생산용 부채의 비율은 39.8%, 소비용 부채의 비율이 14.7%를 차지한다. 농가와 비교하면 농가의 총부채중 농업 생산용 부채의 비율은 1990년의 경우 66.5%, 소비용 부채의 비율이 16.4%를 점한다.

어가의 수협을 통한 연간 차입 규모는 1993년의 경우 2,335천원이다. 또한 어가의 농협 또는 축협을 통한 연간 차입 규모는 3,049천원이다. 한편 농가의 단위 조합을 통한 연간 차입 규모는 1990년의 경우 3,612천원으로 읍자 규모가 영세하다. 어가 차입금 중에서 제도금융시장을 통한 차입 비중은 1993년 79.5%이다. 반면 私債를 통한 차입 비중은 20.5%이다. 제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액 중에서 수협을 통한 차입액의 비중은 30.5%, 농축협을 통한 어가의 자금 차입 비중은 39.8%이다. 반면 私金融을 통한 어가 자금 차입 비중은 20.5%를 점한다. 이는 어가의 자금 차입 행태가 크게 제도 금

융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농가의 사금융을 통한 차입은 1990년 13.9%의 비중을 차지해 어가 차입의 제도 금융화가 상대적으로 미진함을 알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은 1993년 9.2%를 차지하여 여전히 어가 차입의 조달원은 주로 수협, 농협, 축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업의 생산 활동이 계절적이기 때문에 어가의 어업용 자금 수요가 營漁期 직전에 집중되고 漁閑期에 집중적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가의 자금 차입 시기를 보면 전체 자금 차입액중 1993년의 경우 1사분기에 32.3%, 3사분기에 43.2%가 대출된다. 한편 어가의 자금 상환 시기를 보면 전체 자금 상환액 가운데 2사분기에 29%, 4사분기에 32.6%를 상환한다. 따라서 연중 한 번의 자금 차입과 상환 피크가 있는 농가의 금융 행태에 비해 어가 자금 수요의 계절성은 약하다.

어가 소득은 1991년 11,308천원으로 농가 소득 13,105천원에 비해 적다. 어가의 부채액은 6,520천원으로 농가 부채액 5,192천원에 비해 많다. 한편 어가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57.7%이고 농가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39.6%로 어가의 부채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시 근로자 가구의 경우 그 소득은 1993년 월평균 1477.8천원, 부채는 84.7천원이고 그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1993년 5.7%이다. 이것은 어업 소득률이 농업 소득률보다 훨씬 낮음을 의미한다. 1993년의 경우 어업 소득률(어업 소득/어업 수입)은 57%인데 비해 농업 소득률은 67.3%이다. 수산업의 만성적인 저수익률로 인하여 어민들은 가계비 등의 소비성 자금을 차입한다. 따라서 농민과 어민들은 부채 상환 능력이 결여되고 상환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가의 자금수요는 농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과도한 고정자산 비율, 상업화된 금융 행태, 상대적으로 큰 자금 수요, 영세한 용자 규모, 자금의 混用, 자금 수요의 계절성과 낮은 자금 회전율, 높은 사채 의존도, 차입금의 상환 기피, 내적 자본 제한에 의한 투자 제한 등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업과 수산업의 위험성, 移動性, 中斷性, 불확실성, 불규칙성, 상품 판매성 등 생산의 구조적 특성에서 초래되므로 정책 금융의 강화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Ⅲ. 농업 및 수산업 정책금융의 현황

1. 정책 자금의 조달

‘농림수산 자금지원계획(1994년)’을 중심으로 농림수산 정책 자금의 조달과 운용 내용을 분석한다. <표 Ⅲ - 1>에서 보면,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수산 자금 조달액은 1994년의 경우 1,350,7억원이다. 여기에는 분류상의 어려움으로 농림수산부와 기타 정부기관 소관 예산은 일부만이 포함되고 수협의 사업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총조달액중 수협자체자금 27.2%,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17.3%,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17.3%, 한은차입 17%, 일반회계 12.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6.6%, 지방비 1.9%의 순서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분류하면 수산 자금 조달액중 재정자금이 55.8%(그중 기금이 17.3%), 금융자금은 44.2%를 점한다.

<표 Ⅲ-1> 농림수산 정책 자금의 재원별 분류(1994년) (단위: 백만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비	기금	조합자 체자금	한은차입	차관	합계
수산정책 자금	171,814 (12.7)	323,273 (23.9)	25,113 (1.9)	233,443 (17.3)	366,814 (27.2)	230,300 (17.0)	-	1,350,750 (100.0)
농림수산 정책자금	1,702,500 (10.1)	5,369,900 (31.8)	1,938,900 (11.5)	2,659,700 (15.8)	4,188,900 (24.8)	993,500 (5.9)	26,200 (0.1)	16,879,400 (100.0)

자료: 농림수산자금지원계획

<표 Ⅲ-2> 농림수산 정책 자금중 융자금의 재원별 분류(1994년) (단위: 백만원, %)

	특별회계	기금	조합자 체자금	한은차입	합계
수산정책 자금	293,881(29.7)	96,055(9.8)	366,814(37.2)	230,300(23.3)	987,050(100.0)
농림수산 정책자금	2,304,800(29.6)	1,142,398(14.7)	3,353,063 (43.0)	993,500(12.7)	7,793,761(100.0)

자료: 농림수산자금지원계획

전체 농림수산자금 조달과 비교하면, 1994년의 경우 농림수산자금 조달액 16,879,4억원중 재정자금이 69.2%(그중 기금이 15.8%), 금융자금은 30.8%를 점한다. 금융자금 구성을 자세히 보면 농수축협 자체자금은 24.8%, 한은차입금은 5.9%를 차지한다. 수산업의 경우 한은 차입금의 비율이 높아 금융자율화에 따른 한국은행의 간접통화관리와 정책금융 축소 방침에 따른 한은차입금의 축소로 인하여 수산업이 농업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된 수산 자금은 1994년의 경우 투자 26.9%와 융자 73.1%로 운용된다. 그중 융자금만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표 Ⅲ-2>에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23.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가 6.1%, 수협자체자금 37.2%, 한은차입금 23.3%,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9.8%에 의존한다. 다시 분류하면 수산 자금 융자액중 재정자금이 39.5%(그중 기금이 9.8%), 금융자금이 60.5%를 점한다.

전체 농림수산자금 조달액중 융자와 비교하면 1994년의 경우 농림수산 자금 조달액 융자중 재정자금이 44.3%(그중 기금이 14.7%), 금융자금은 55.7%를 점한다. 금융자금 구성을 자세히 보면 농협, 수협, 축협의 자체자금은 43.0%, 한은 차입금은 12.7%를 차지한다.

2. 정책 자금의 운용

1) 정책 자금의 용도별 분류

수산청과 직접 관련된 정책자금 지원액은 1994년 계획으로 총 13,507.9억원이다. 전체 수산 자금 지원액중 <표 Ⅲ-3>과 같이 수급조절 및 운전 자금의 비중이 68.2%를 점하고 구조개선 등과 관련된 지원액은 31.8%로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수산업구조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원양어업 육성 5.3%, 어항시설 확충 5.2%, 수산자원 조성 3.2%, 어로시설 현대화 2.7%, 어촌소득원 개발 1.1%, 어촌생활환경개선 0.8% 등의 순서로 큰 비중은 차지

1) 전체 농림수산 자금 조달액 중 수산 자금은 8.0%를 차지하므로 농림수산 자금을 농업 지원자금으로 간주하고 농업 자금과 수산업 자금을 비교한다.

수산경영론집

<표 Ⅲ-3> 수산 정책 자금의 용도별 분류(1994년) (단위: 백만원, %)

지 원 사 업	투 자 액	용 자 액	합 계
구 조 개 선 사 업	200,296 (55.1)	228,636 (23.2)	428,932 (31.8)
수급조절 및 운전 자금	163,444 (44.9)	758,414 (76.8)	921,858 (68.2)
합 계	363,740 (26.9)	987,050 (73.1)	1,350,790 (100.0)

자료: 농림수산자금지원계획

수급조절 및 운전자금은 어가 부담 경감, 영어자금, 조합 운영 지원, 수매자금을 포함한다.

1. '투자액' 칸의 괄호안 숫자는 투자액중 각 사업에 대한 지원액의 비율이다.
2. '용자액' 칸의 괄호안 숫자는 용자액중 각 사업에 대한 용자액의 비율이다.

<표 Ⅲ-4> 농림수산 정책 자금의 용도별 분류(1994년) (단위: 백만원, %)

지 원 사 업	투 자 액	용 자 액	합 계
구 조 개 선 사 업	5,298,669 (58.4)	2,744,761 (35.4)	8,043,430 (47.6)
수급조절 및 운전 자금	3,780,728 (41.6)	5,049,000 (64.6)	8,829,728 (52.4)
합 계	9,079,397 (53.8)	7,793,761 (46.2)	16,873,158 (100.0)

자료: 농림수산자금지원계획

수급조절 및 운전자금은 단기성 자금, 수매자금을 포함한다.

1. '투자액' 칸의 괄호안 숫자는 투자액중 각 사업에 대한 지원액의 비율이다.
2. '용자액' 칸의 괄호안 숫자는 용자액중 각 사업에 대한 용자액의 비율이다.

하고 있다. 반면 인력 개발과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액이 각각 전체의 0.1%(수산청 소관 예산만 포함)와 1.4%에 불과하였으며, 수산물 가공 지원에 대한 지원 역시 2.4%에 불과하였다. 또한 수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지원은 7.7% 수준이다.

한편 <표 Ⅲ-4>와 같이 전체 농림수산 정책 자금 운용에 있어서 수급조절 및 가격 지지, 운전자금, 농어가 부담 경감 같은 단기 운전 자금의 비중이 1994년 52.4%를 점하고 구조개선사업 자금의 비율은 47.6%이어서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이 제약되고 있다. 또한 농업의 구조개선사업 비중이 수산업의 경우보다 크다.

정책 자금중 용자만을 볼 때는 영어자금 지원이 전체의 70.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 자금에 대한 편중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자금 다음으로는 수산물 유통 지원 9.7%, 원양어업 육성 7.2%, 조합 운영 지원 5.9%, 어로시설 현대화 3.6%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산자금 지원 방식을 보면 수산자금 지원은 정부의 직접 투자, 사업자에 대한 보조, 사업자에 대한 용자로 구분된다. 1994년의 경우 전체 수산자금 지원액중 투자는 26.9%, 용자는 73.1%를 차지한다. 전체 농림수산자금 지원 방식과 비교해 보면 <표 Ⅲ-4>와 같이 1994년의 경우 농림수산자금 지원액중 투자와 보조가 53.8%, 용자가 46.2%를 구성한다. 따라서 어가의 자금 부담 능력(경영 소요 자금의 차입금 의존도)으로 볼 때 어가는 농가에 비해 자금 지원에 있어서 크게 불리함을 알 수 있다.

2) 정책 자금의 용자기간별 분류

수산 자금 용자를 용자 기간별로 분류하여 보면, <표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 용자가 1994년의 경우 전체의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장기 용자는 4.6%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전체

<표 Ⅲ-5> 수산 자금 융자금의 융자기간별 분류
(1994년) (단위: 백만원, %)

	중장기	단기	합계
융자기간	3년 이상	1~2년 이내	-
융자액	83,658 (4.6)	903,392 (95.4)	987,050 (100.0)

자료: 농림수산자금지원계획

<표 Ⅲ-6> 농림수산 자금 융자금의 융자기간별 분류
(1994년) (단위: 백만원, %)

	중장기	단기	합계
융자기간	3년 이상	1~2년 이내	-
융자액	2,744,900 (35.2)	5,049,000 (64.8)	7,793,900 (100.0)

자료: 농림수산자금지원계획

농림수산자금 융자와 비교하면 <표 Ⅲ-6>과 같이 1994년의 경우 농림수산업에 대한 단기 융자가 64.8%, 중장기 융자가 35.2%를 점한다. 따라서 어가의 자금 부담 능력(경영 소요 자금의 차입금 의존도)으로 볼 때 어가는 농가에 비해 자금 지원 기간에 있어서도 크게 불리함을 알 수 있다.

Ⅳ. 농업 및 수산업 정책금융의 개선 방향

먼저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각 산업의 특성과 생산자의 자금 부담 능력과 상환 능력 등 자금 수요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 자금을 운용한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정책 금융은 생산자의 투자를 적절히 유인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어가와 농가의 자금 수요액과 자금 부담 능력을 보면 어가의 경영 소요 자금은 1993년의 경우 17,460천원인데 그중 차입금은 7,662천원으로 부채 의존도는 43.9%에 이른다. 농가의 경영 소요 자금은 1990년의 경우 12,108천원(1992년 14,464천원)이고 그중 차입금은 4,734천원으로 부채 의존도는 39.1%이다. 따라서 어가의 경영 소요 자금이 농가의 경우에 비해 많다. 또한 어가의 경영 소요 자금의 부채 의존도는 농가보다 더 높아 어가의 경영 자금 부담 능력이 낮다.

어가와 농가의 자금 상환 능력을 보면 어가 소득은 1991년 11,308천원으로 농가 소득 13,105천원에 비해 적다. 한편 어가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57.7%이고 농가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39.6%로 어가의 부채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 이것은 어업 소득률이 농업 소득률보다 훨씬 낮은 데서 초래된다. 1993년의 경우 어업 소득률은 57%인데 비해 농업 소득률은 67.3%이다. 따라서 어가의 부채 상환 능력이 농가보다 열위에 있다.

한편 농림수산 정책 자금 운용에 있어서 수급 조절 및 가격 지지, 운전자금, (농어가 부담 경감) 같은 단기 운전 자금의 비중이 1994년 52.4%이고, 구조개선사업 자금의 비율은 47.6%이어서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이 제약되고 있다. 수산자금중 수산업 구조개선사업 자금은 31.8%, 수급 조절 및 운전자금은 68.2%를 차지한다. 따라서 농업의 구조개선사업 비중이 수산업의 경우보다 크다.

더구나 전체 농림수산자금과 수산자금의 지원 방식을 비교해 보면, 1994년의 경우 수산자금 중 투자는 26.9%, 융자는 73.1%를 차지한다. 1994년의 경우 전체 농림수산자금 중 투자와 보조가 53.8%, 융자가 46.2%를 구성한다. 따라서 어가와 농가의 상대적 자금 부담 능력으로 볼때 수산업은 농업에 비해 자금 지원 방식에 있어서 크게 불리함을 알 수 있다.

농림수산 정책 자금 용자의 경우 융자금 전체중 1~2년 이내의 단기 자금이 1994년에 64.8%를 차지하여 생산 기반 형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는 소득 보조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현실은 농림수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가 농어업 투자가 가지는 높은 위험성과 불확실성, 회입 기간의 장기성 등을 보완하는 기능을 나타낼 수 없게 한다.

더구나 전체 농림수산자금과 수산자금 용자를 비교하면 수산 자금 용자의 경우 단기 용자가 1994년의 경우 전체의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장기 용자는 4.6%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1994년의 경우 전체 농림수산업에 대한 단기 용자가 64.8%, 중장기 용자가 35.2%를 점한다. 따라서 어가는 농가에 비해 용자 기간에 있어서도 크게 불리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금융 자율화에 따라 금융정책이 개편되고 정책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이에 병행되는 재정정책의 운영이 필요하다. 1994년의 경우 농림수산자금 조달액 16,879,4억원 중 재정자금이 69.2%(그중 기금이 15.8%), 금융자금은 30.8%를 점한다. 금융자금 구성을 자세히 보면 생산자 단체(농수축협) 자금은 24.8%, 한은차입금은 5.9%를 차지한다. 한국은행의 간접통화관리에 따라 대은행대출금이 축소되어 정책 금융이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재정자금의 증대가 필요하다.

전체 농림수산자금과 수산자금 조달을 비교하면, 수산 자금 조달액중 재정자금이 55.8%(그중 기금이 17.3%), 금융자금은 44.2%를 점한다. 수산업의 금융자금 비율이 농업보다 더 높고 재정자금 비율은 낮다. 따라서 금융자율화에 따른 한국은행의 간접통화관리와 정책금융 축소 방침에 따른 한은차입금의 축소로 인하여 수산업이 농업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어가와 농가의 자금 수요 특성을 보면, 어가의 경영 소요 자금이 농가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어가의 경영 소요 자금의 차입금 의존도는 농가보다 더 높아 어가의 경영 자금 부담 능력이 낮다. 또한 어업 소득률이 농업 소득률보다 낮아 어가 소득이 농가 소득보다 적기 때문에 어가의 부채상환 능력이 농가보다 열위에 있다.

전체 농림수산자금과 수산자금의 구조개선사업자금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수산업 구조개선사업자금의 비율이 농업의 경우보다 낮다. 또한 전체 농림수산자금과 수산자금의 투자 및 보조 비율을 비교해 보면 어가와 농가의 상대적 자금 부담 능력으로 볼 때 수산업은 농업에 비해 자금 보조에 있어서 불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농림수산자금과 수산자금 용자기간을 비교하면 수산업은 농업에 비해 용자기간에 있어서도 불리함을 알 수 있다. 전체 농림수산자금과 수산자금 조달을 비교하면 수산업의 금융자금 비율이 농업보다 더 높고 재정자금 비율은 낮다. 따라서 금융자율화에 따른 한국은행의 간접통화관리와 정책금융 축소 방침에 따른 한은차입금의 축소로 인하여 수산업이 농업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산업의 특성과 생산자의 자금 부담 능력과 상환 능력 등 자금 수요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자금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 자율화에 따라 금융정

책이 개편되어 정책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이에 병행되는 재정정책의 운영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김용택, 김병률, 설광언, 김창길, 권오상, 심영근 및 김영철, 농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정상진, '어가의 금융행태에 관한 분석', 수협조사월보, 27권 6호, 수협중앙회, 1995년 11/12월.

정상진, 금융산업 개편과 수산업 금융의 발전 방향, 연구보고 4,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1996.

A Comparative Study of Financial Support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Jung, Sang - Jin

Abstract

The pollution in the coastal sea is being aggravated because of frequent happening of red tide and oil leakage from tanker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s being drawn in the sea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 fisheries in Korea is under a great change in their production base. On the other hand, the fisheries have been considered as a part of agriculture in policy making and financial support. The thesis compares agriculture with fisheries in the fund demands and financial supports. It tries to find a way i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fund for the two industries.

The fund demand of a typical fishing household is greater than that of a typical farm household. The fund used by a fishery household is more dependent on debt than that of a farm household. Therefore, the internal financing ability of a fishery household is weaker than that of a farm household. The repaying ability of a fishery household is weaker than that of a farm household because a fishery household's income is less than a farm household's.

When we analyze the uses of fund, the fishing industry has some disadvantage in fund uses.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fisheries' structural change is weaker than that for agriculture. The fishing industry has some disadvantage in the investment and subsidy rates. Also, the loan period for fisheries is shorter on average than that for agriculture. When we analyze the sources of the fund, the fisheries' banking sources are greater than the government's sources, which is relatively stable. Therefore, the fisheries will be more heavily affected by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industry and system than the agriculture will.

The government needs to change the shortcomings in the sources and uses of fund. First, it needs to use the fu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and producers' financing ability. Second, it needs to adjust the sources of fund to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ystem.